

전남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전남도가 올해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기조 등에 맞춰 적극 재정 운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통합재정운영평가' 분야 대상(대통령상)을 받아, 재정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했다.

통합재정운영평가는 국가재정운용 기조에 부합하고 지방재정·세제 핵심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집행, 재정계획과 관리 등 4개 지표

실적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재정운용 역량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정 최우선 과제를 민생안정에 두고 1185억

정부 경기진작·민생안정 기조 대응…적극적 재정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반영 등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예산 편성과 국민주권정부의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기조에 맞춰 밸류드에 추경을 편성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펼쳤다.

또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최우수 지역 선정과 안정적 재무 관리 등 지방재정을 단단하게 운영해 재정집행·관리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에서도 전남도가 적

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값진 인정을 받아 뿐만 아니라"며 "2026년에도 민생안정 등 국정 방향과 부합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전략적으로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지방재정 규모 증가와 위상 제고 등을 반영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확대 개편해 시상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통합재정운영평가' 분야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광주도시공사,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국무총리 표창'

주거복지·안정…7관왕 '쾌거'
32년 공급 노하우 집약된 성과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주거복지 향상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주거복지 분야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국내 주거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행사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수상으로 보건복



광주도시공사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주거복지 향상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 결실은 본 결과로 평가된다.

공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입주 이후의 생활 안정까지 고려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는 1993년 창립 이후 32년간 쌓아온

13.597세대의 공공주택 공급·관리 역량

에 돌봄·자립·에너지 복지를 연계한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확대하며, 공공주택의 역할을 주거 지원에서 생활 지원으로 확장한 점이 이번 수상에서 높이 평가됐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수

상은 오랜 시간 축적해온 공공주택 운영과 주거복지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순천시는 최근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도시락과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결식아동 제로 체계 구축에 앞장서기로 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본부장, 노관규 순천시장, 최준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순천시, 결식아동 제로 체계 구축 앞장

행복얼라이언스·행복도시락과 '행복두끼 프로젝트' 체결

순천시가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도시락'과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에서 행복얼라이언스·행복도시락과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결식아동 제로 체계 구축에 앞장서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본부장, 최준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석해 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결식 우려 아동 40명을 발굴해 2026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1년여간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안전한 식재료를 넘어 아동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

요한 약속이다"며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급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박석기 기자 2556pk@gwangnam.co.kr

나주 동신대 재학생들 '최우수 논문상'…연구 경쟁력 입증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이 최근 개최된 2025 대한시과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동신대 대정3관 투게더홀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연구자와 임상전문가, 산업체 관계자, 교수진 등 150여명이 참석해 '시지각 및 시기능훈련의 임상 응용과 근시 진행 억제 전략'을 주제로 최신 연구동향과 임상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동신대 대학원과 학부 소속 총 7명의 학생이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사과정 융후이씨는 '청소년 근시 관리에서 0.01% 아트로핀과 OK렌즈 병용 사용 시 치료 효과와 염증 조절 기전 분

석'을 주제로 발표해 주목받았으며, 박사과정 전위자오씨는 'OK렌즈 중단 후 각막 형태 회복기에 나타나는 연령 및 성별 굴절발달 변화 분석' 연구를 통해 OK렌즈 착용 중단 시 발생하는 굴절 및 각막 변화의 과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했다.

학부생으로는 안경광학과 4학년 양나래 학생이 유일하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양나래 학생은 광주센터럴컬리中关과와 공동으로 각막내피세포의 형태학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밖에도 대학원 김의현, 임찬우, 자오치우이, 저우잉 학생이 최우수 논문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동신대 대학원의 연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이 최근 개최된 2025 대한시과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동신대 안경광학과 동계 학술대회 모습.

구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인철 대한시과학회 회장(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은 "시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구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시건강 관

리 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대학·지역사회·의료기관 연계 교육과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기자 pose007@gwangnam.co.kr

영광농협, 선심성 공약 반대 결의대회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 다짐

영광농협은 최근 시عا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선심성 공약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의원 108명을 비롯해 조합장, 상임이사, 이사·감사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선거와 향후 조합장 선

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선

심성 공약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명정대



영광농협은 최근 사عا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선심성 공약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 자정 노력을 강화하

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남구 김백용 주무관, '건축사 시험' 합격

"현장서 전문성 갖고 건축 행정 높이고 싶다"

광주 남구청 주택과에서 근무 중인 김백용(38·사진) 주무관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지난 2019년 공직사회에 첫 발을 뗐다.

김 주무관은 공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팀들이 시간을 내어 학습을 병행한 끝에 평균 8%대의 낮은 합격률을 보이는 국가 전문자격시험인 '건축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자격시험에 응시한 이유는 현장에 서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건축 행정에 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 주무관은 목표를 설정한 뒤 회계과와 주택과 등 여러 부서를 거쳐면서 남구 가족사랑나눔센터 및 자활센터 건립과 구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남구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시설개선, 청사 신축 설계 용역 까지 각종 건축설계와 공사 업무 등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 퇴근 후에도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학습했다.

김백용 주무관은 "자기계발을 적극 독려하면서 격려해 준 직장 내 환경과 가족 응원이 있었기에 합격할 수 있었다"면서

"지적 취득을 계기로 더욱 전문성을 확보해 건축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주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축사 자격시험은 건축분야 최고 고위의 국가 전문 자격시험으로, 연간 평균 합격률이 약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본사방문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